

주요 서비스 업종의 생산과 상용직·임시직 변화

배기준*

I. 문제의 제기

2014년 1~9월 중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25,543천 명 중 서비스업 취업자는 17,886천 명으로 약 70%를 차지하였다. 올해 고용시장의 주된 양상은 제조업이 1~9월 중 전년동기 대비 151천 명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이 1분기 569천 명, 2분기 387천 명, 3분기 401천 명으로 등락하여 1~9월 중 전체 취업자 증감 570천 명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였다. 한편 서비스업의 이러한 등락은 장기적으로 이어져 온 상용직 증가 추세 중에도 하반기 들어 임시직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등 최근의 서비스업 부문 고용구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지속되어 온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증가(임시직 감소) 추세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그림 1 참조)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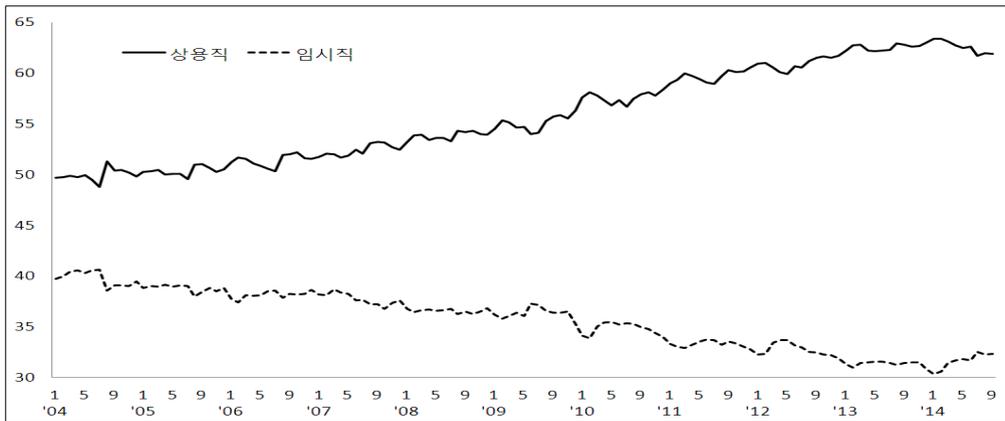
II. 5대 서비스 업종 개요

본고에서는 서비스 부문 중 가장 많은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개 업종을 중심으로, 각 산업의 생산활동과 임금근로자 증감 간의 관계 및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생산활동과 연관되는 양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해당 5개 업종은 2014년 1~9월 평균 임금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도소매업(17.0%), 음식숙박업(9.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3%), 교육서비스업(10.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9%)으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backj@kli.re.kr).

[그림 1] 서비스업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임시직의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KOSIS.

[표 1] 서비스업 5대 업종의 주요 특성별 고용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1	2012	2013	2014 1분기	2014 2분기	2014 3분기
전체 임금근로자	193	201	261	434	336	382
상용직 소계	256	232	306	296	220	148
남성	76	45	115	110	60	52
여성	181	188	190	186	160	96
20대	12	4	68	62	56	22
30대	82	57	25	38	58	35
40대	83	76	111	53	0	-18
50세 이상	77	92	103	142	103	1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	91	151	95	89	75
사무 종사자	75	56	54	84	61	37
서비스 종사자	23	17	34	44	38	19
판매 종사자	17	40	36	21	22	21
임시직 소계	-59	21	-39	153	161	226
남성	17	18	-29	65	94	149
여성	-76	3	-10	88	67	77
20대	-38	7	-27	25	29	74
30대	-53	-26	-71	8	-6	20
40대	-32	-17	8	6	1	-14
50세 이상	50	55	47	93	112	128
서비스 종사자	-22	22	29	72	86	63
판매 종사자	-28	26	-2	31	25	47
단순노무 종사자	18	-2	13	45	47	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로 선정하였다. <표 1>을 통해 서비스업 5대 업종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이전 시점들에 비해 2014년 들어 임시직의 고용 증가가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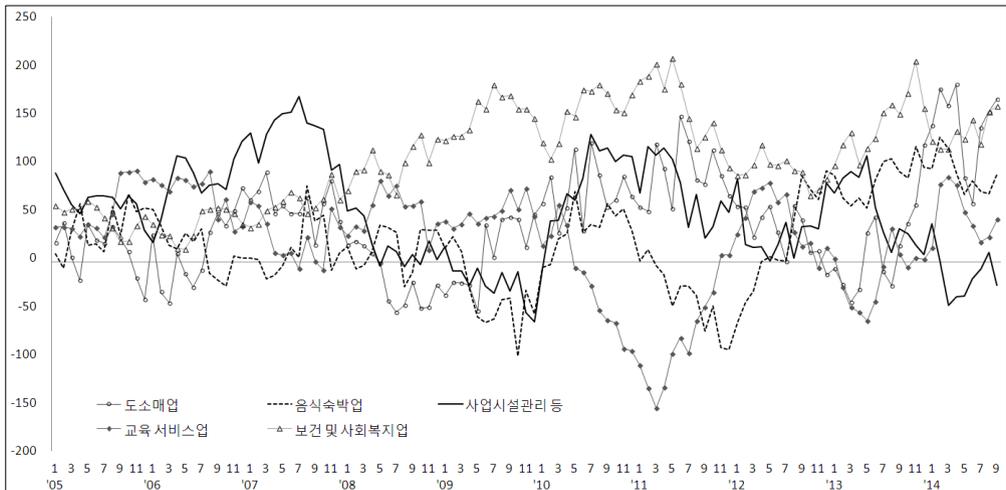
이 중 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특히 3분기에는 크게 늘었다. 30대와 40대는 1~9월 중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20대와 50세 이상 연령층은 1분기~3분기를 거듭하며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었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3분기 중 남성 20대의 경우 임시직 고용이 65천 명으로 크게 늘었고 30·40대에서도 28천 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20·30·40대에서 4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81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용직에서는 40대와 남성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폭이 줄었으며,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에서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분기 중 여성 상용직은 96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 중 81천 명을 50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했던 반면, 같은 기간 증가한 남성 상용직 52천 명 중 48천 명이 20·30대에 해당되는 등 최근 서비스업에서의 상용직·임시직 변화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5개 서비스 업종은 각 업종 간 큰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대표적인 내수의존형 업종으로, 사전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그림 2]의 2011년 초반~2013년 말의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고용지표가 동행하지는 않으며, 최근 들어 생산·고용 연계가 다소 불안정해졌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대외수요나 제조업 생산에도 일부 의존하는 등 통상적인 서비스 업종과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림 2] 서비스업 5대 업종별 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업은 사회·제도적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 오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의 변화를 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등 서비스 업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종 간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용직·임시직 구성 변화는 어느 특정 업종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관측되고 있어, 이를 각 업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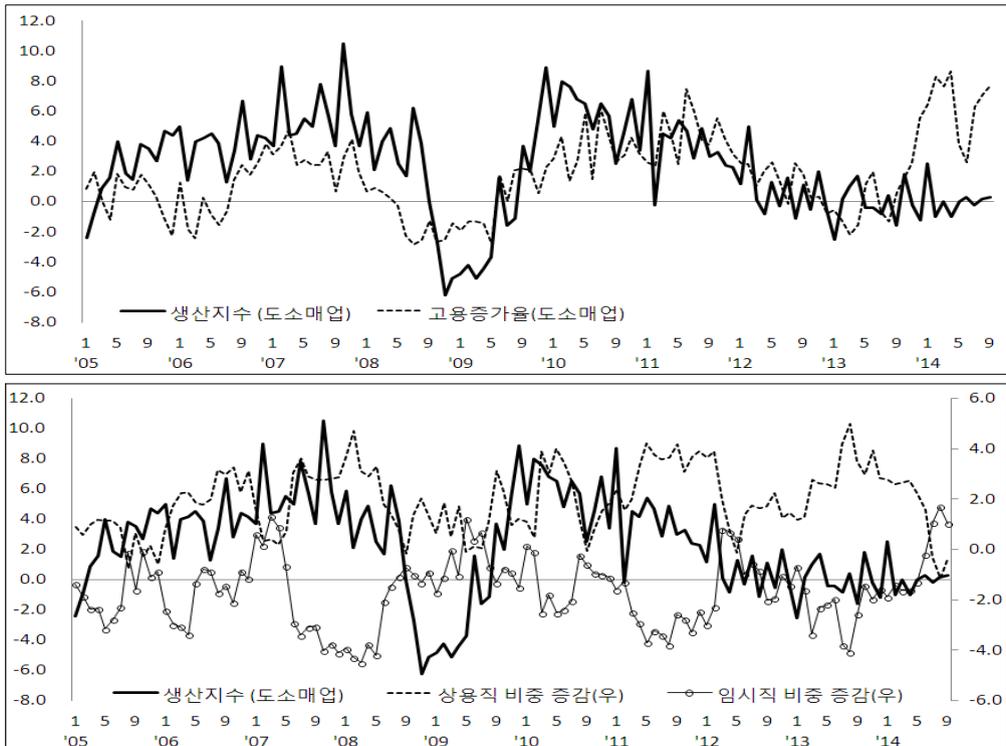
Ⅲ. 각 업종별 생산과 상용직·임시직의 변화

1. 내수업종 :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생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락한 이후 2010년 말까지 회복한 뒤

〔그림 3〕 도소매업 생산과 고용 증가율 및 상용직·임시직 비중 증감 추이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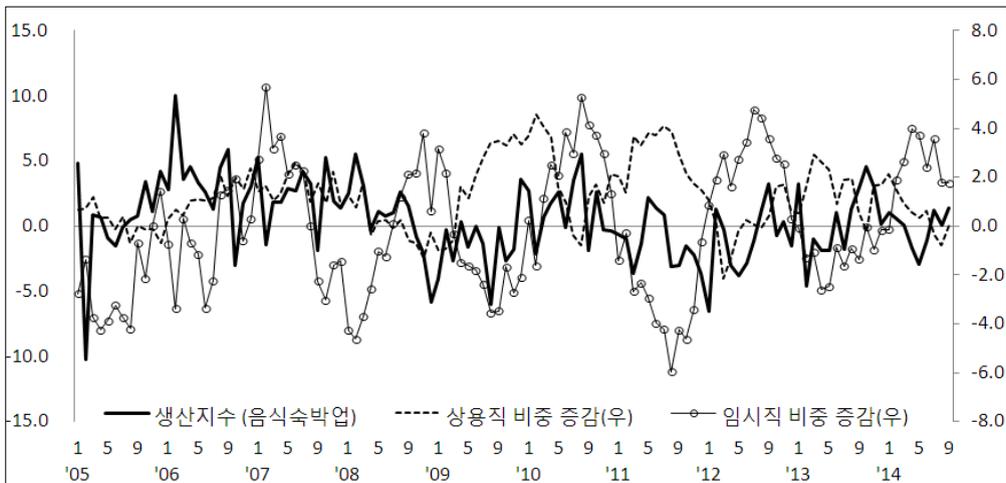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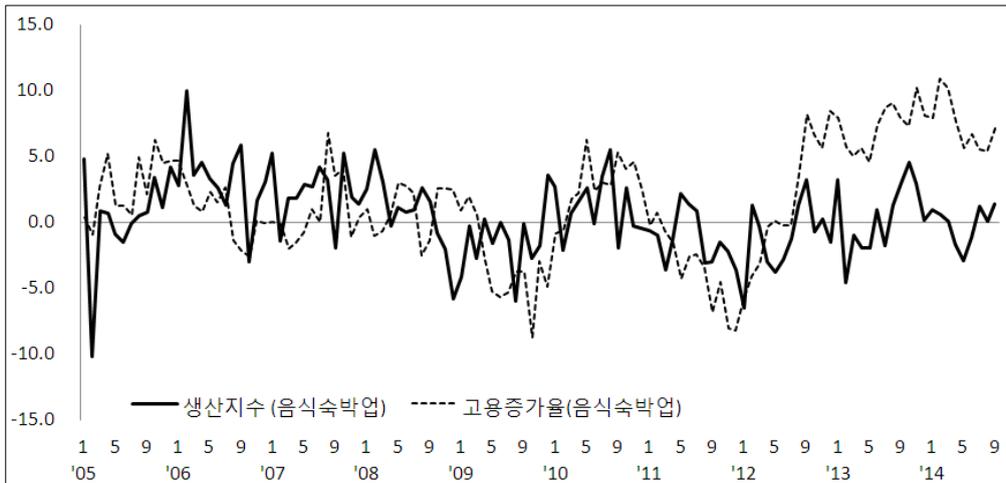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불변지수 기준)』.

현재까지 완만하게 증가율이 둔화되어 오고 있는 양상이다. 도소매업은 전통적으로 내수 경기와 동행하여 등락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이 플러스(+)로 증가해 오던 업종인데, 이러한 기조는 금융위기 중 고용감소 국면에서도 유지되어 왔다. 최근 도소매업은 2013년 10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뒤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점점 확대되어 2014년 1분기 중에는 159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5, 6월 중 평균 50천 명으로 잠시 둔화 이후 3분기 들어 다시 148천 명으로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동일기간 중 생산측면에서 이렇다 할 상승/하락 기조가 관측되지 않아 최근 들어 도소매업의 생산·고용 연계가 다소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4] 음식숙박업 생산과 고용 증가율 및 상용직·임시직 비중 증감 추이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불변지수 기준)』.

고용측면에서 최근 주목할 점은 3분기 중 도소매업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변화로 돌아섰다는 점인데, 달리 말하자면 3분기 중 도소매업 고용의 회복은 임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증가한 임시직 86천 명 중 52천 명이 20·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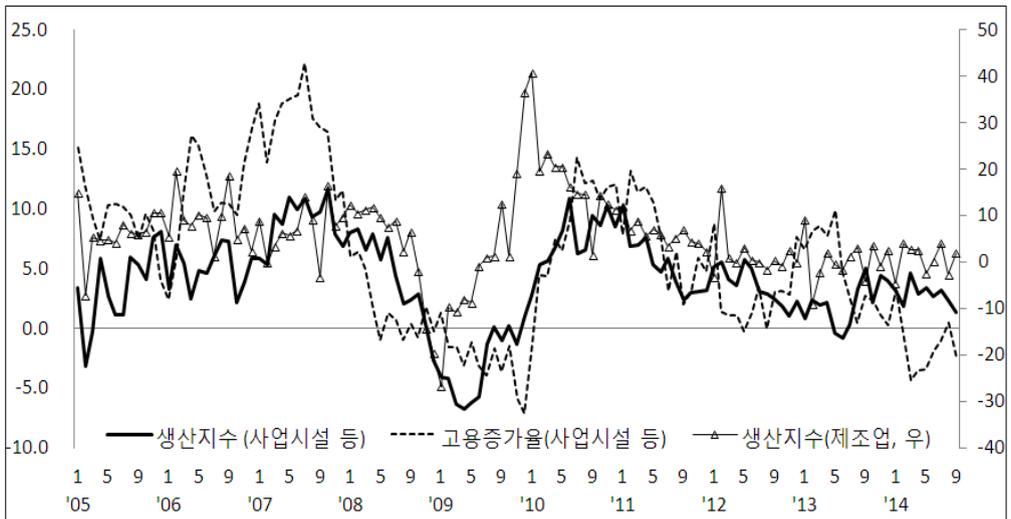
음식숙박업 역시 전통적으로 생산에 대해 3~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고용반응이 나타나는 업종으로, 음식숙박업 고용은 2005~2012년 기간평균 증가율이 1.2% 대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 7.4%까지 증가폭이 상승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 역시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생산·고용 연계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중 음식숙박업의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의 비중은 높아져 왔으며, 1~9월 평균 증가한 임시직 82천 명 중 41천 명이 20대 남성이었다. 한편 동일기간 중 음식숙박업 여성 임시직은 20대(15천 명)와 50세 이상 연령층(22천 명) 집단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음식숙박업은 2009년 중반이나 2012년 초 등 고용증가율이 침체 후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임시직의 비중이 먼저 상승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생산과 고용증가율이 함께 등락하는 상황에서 임시직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임시직 비중 변화에 경기적으로 보이는 경향성은 파악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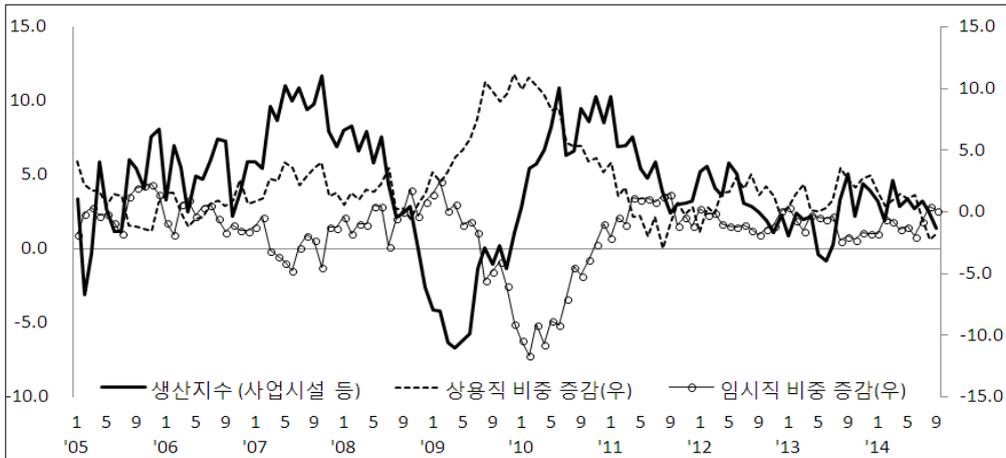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5대 서비스 업종 중 가장 이질적인 업종으로, 생

(그림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증가율 및 상용직·임시직 비중 증감 추이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불변지수 기준)』.

산·고용 연계가 가장 안정적이며 본고에서 분석한 서비스 업종 중 유일하게 고용이 생산에 대한 후행성¹⁾을 갖는 특성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에 대한 후행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생산·고용은 2014년 1~9월 중 임시직이 14천 명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관측되었던 임시직 비중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업종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국면 중 고용조정이 임시직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들어서는 생산증가율의 둔화에 따라 상용직(-8천 명)과 임시직이 모두 감소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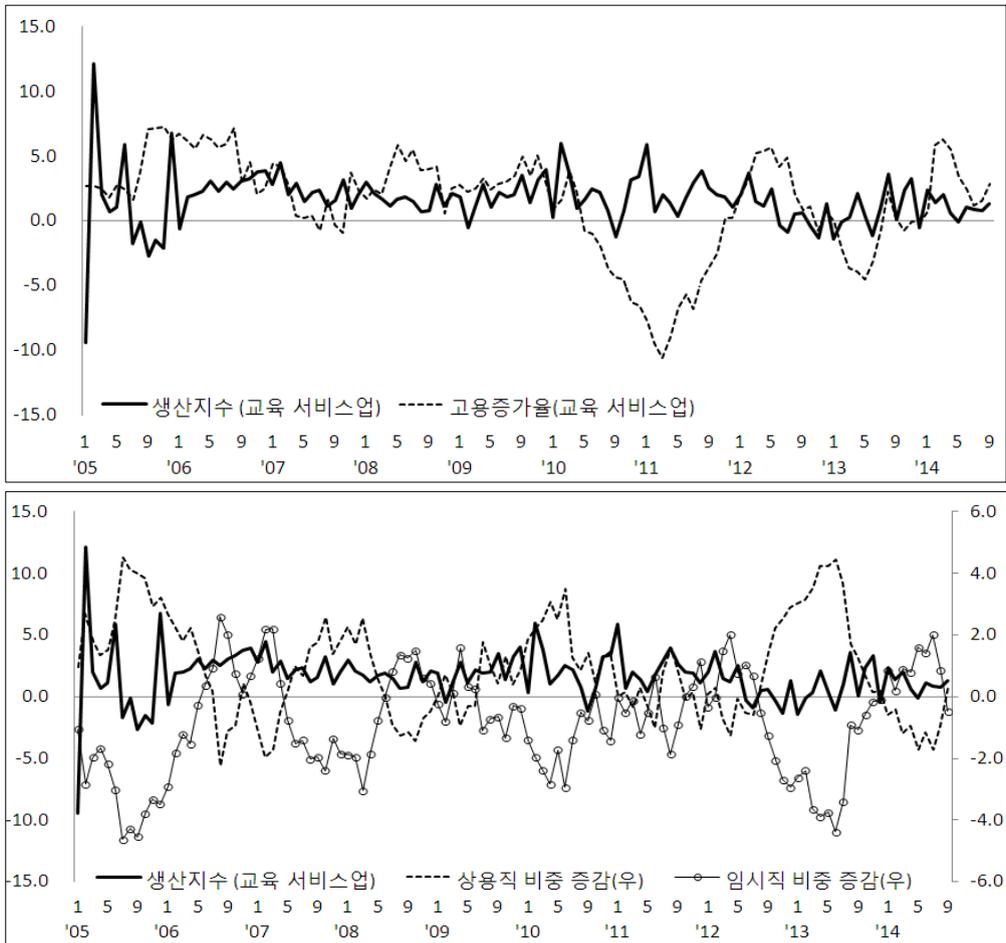
3.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마지막 서비스 업종 유형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생산지수와 연계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생산 측면에서 별다른 상승·하락 국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2012년 간 큰 침체-회복기를 보였으며 그 이후에도 생산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용변화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경기변동보다는 장기적인 사회·제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되 두 변수 간에 이렇다 할 반응이 관측되지 않았다. 한편 이 두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변화를 임시직이 견인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며, 2013년 상반기부터 두 업종에서 임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2014년 들어서는 상용직의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Granger causality 기준임.

[그림 6] 교육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증가율 및 상용직·임시직 비중 증감 추이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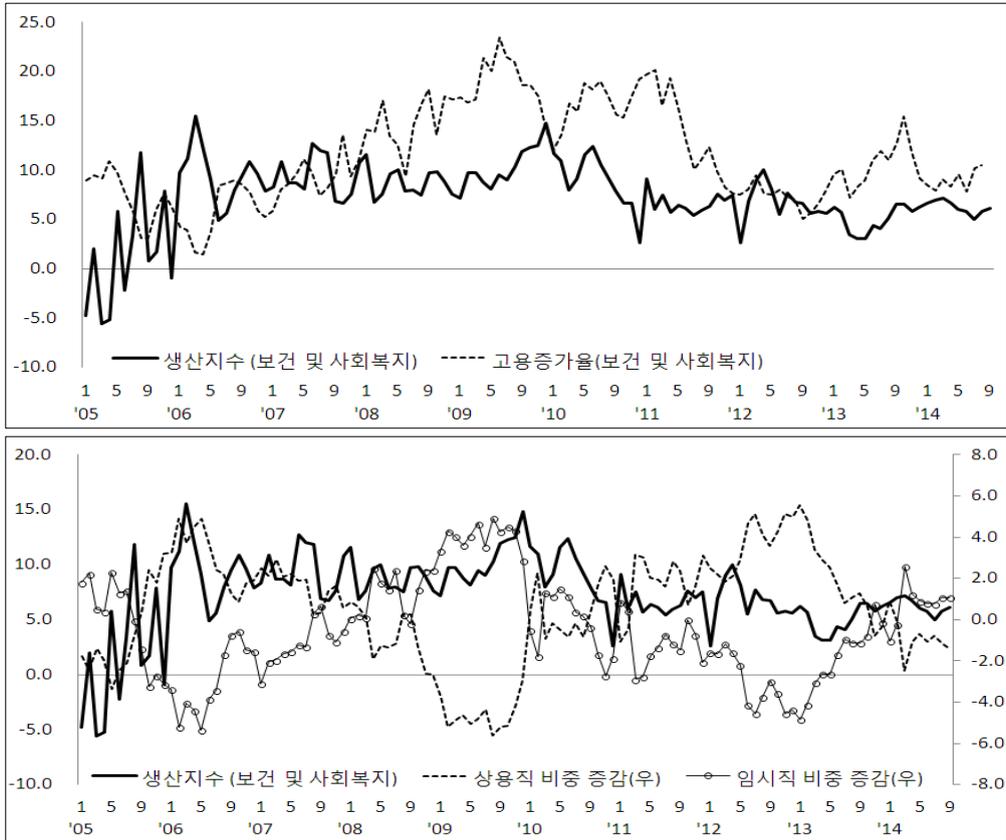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불변지수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시직 고용은 여성 고용이 남성에 비해 약 5배 규모로, 2014년 1~9월 중 남녀 모두 임시직이 50·60대(남성 17천 명, 여성 32천 명)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남성은 20대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5천 명 → 3분기 중 33천 명으로 임시직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여성은 20·30대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임시직이 26천 명 증가하였다가 3사분기 들어서는 13천 명이 감소하는 등 집단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2014년 1~9월 평균 임시직이 27천 명 증가하였다. 이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그림 7 참조)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의 비중 변화가 생산변화에 선행·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업종의 상용직 증가 추세와는 별개로 생산·고용 연계가 부분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증가율 및 상용직·임시직 비중 증감 추이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불변지수 기준)』.

IV. 평가와 소결

상용직·임시직 고용의 비중을 결정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상용직 고용의 조정에 따르는 비용이 임시직 고용의 조정에 따르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생산의 경기적 변동이 큰 업종일수록 임시직 고용의 비중을 늘려 완충효과(buffer)를 누리려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Goux et al., 2001). 한편 향후 경기의 개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먼저 유연한 형태의 고용을 늘리고, 이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상용직을 확대시키는 식의 고용행태를 보이는 고용주가 충분히 많을 경우, (우리나라의 임시직 개념과는 상이하지만) 파견고용(temporary agency work)을 경기에 대한 선행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Canoy et al.,

2009)가 제기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임시일용직 고용의 순환이 경제성장에 선행하고 상용직 고용의 순환은 경제성장에 후행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황선웅, 2009). 이와 같이 경기변동과 상용직·임시직 고용 간의 연계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에서 이러한 연계에 대한 미시적인 수준의 분석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전체 취업자 변동 중 서비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2014년 현재, 본고는 최근 나타난 서비스직 전반의 상용직 둔화·임시직 증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취합·정리하는 사전작업으로 준비하였다.

서비스 부문 5대 업종에 대한 본고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업종 내에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하며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를 할 경우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과 같은 내수의존형 업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제조업이나 대외부문에도 일부 의존하는 업종,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경기적 요인보다는 사회·제도적 변화에 반응하는 업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수의존형 업종에서는 전통적으로 관측되던 밀접한 생산·고용 연계가 지난 1~2년 사이 다소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한편, 상용직·임시직의 비중에는 이렇다 할 경기반응이 관측되지 않았다. 제조업·대외부문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는 제조업 생산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생산 → 고용 변화로 이어지는 뚜렷한 연계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대한 반응은 우선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2013년 중 임시직 고용이 (상용직 고용과 함께) 감소하는 등 그 외의 서비스업 전반과는 이질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는 전체 고용과 생산 간의 연계는 약하게 나타난 반면 고용변화가 주로 임시직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고용보다는 임시직 비중이 경기를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서비스업 5대 업종의 생산과 상용직·임시직 고용에 대한 자료를 간추려 제시하는 데 그치고 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선행성·연계성 검정이 생략되어 명확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양한 실증방법론을 통해 이들 간의 선행성·연계성을 규명하면 향후 노동시장 전망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홍보에 가까운 생산 증가율을 배경으로 늘어났던 서비스업 임시직 중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과 50세 이상 고령층임을 고려하면 향후 서비스업 고용의 질의 개선·악화 여부를 경기와 연관지어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과 인구집단에 대해 (임금을 포함한) 미시적인 수준의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참고문헌>

황선웅(2009),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 『노동정책연구』 9(1), pp.221~245.

Canoy, M., van Heel, P., E. Hazebroek(2009),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Leading Economic Indicator” ECORYS Netherlands working paper.

Goux, D., E. Maurin and M. Pauchet(2001), “Fixed-term Contracts and the Dynamics of Labour Demand”, *European Economic Review*, pp.533~552.